

감독 박찬욱 “스파이와 영화감독은 하는 일이 비슷해요”

또 한 번 스파이물로 HBO 시리즈 ‘동조자’
“공작 계획 짜는 스파이 영화감독 같기도”
비엠타인 응우옌 작가 동명 소설이 원작
1970년대 배경 베트남 간첩 이야기 그려

박찬욱(61) 감독이 스파이 소설 마니아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온갖 스파이 장르 문학을 섭렵했고, 그 중에서도 영국 작가 존 르 카레 작품에 심취했다는 건 박 감독이 앞서 각종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스파이를 향한 박 감독의 애정은 그가 만든 첫 번째 시리즈 ‘리틀 드러머 걸’(The Little Drummer Girl)(2018)로 발현됐다. 이 시리즈는 바로 그 르 카레가 1983년에 내놓은 동명 소설이 원작이었다.

◇다시 스파이 시리즈로 돌아온 박찬욱

박 감독이 지난 15일 6년만에 두 번째 시리즈를 내놨다. HBO 오리지널 시리즈 ‘동조자’(The Sympathizer)다. 박 감독은 이번에도 스파이 소설을 각색한 작품을 택했다.

원작은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엠타인 응우옌이 2015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 응우옌 작가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작품은 출간 이듬해 풀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 받았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남베트남 특수수 소속 군인이자 북베트남이 심어 놓은 간첩인 ‘캡틴’이 동시에 미국 CIA를 위해 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18일 오후 국내에서 ‘동조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 감독은 르 카레 작품에 심취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파이물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과 영화감독이 된다는 건 어쩌면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파이가 하는 일과

영화감독이 하는 일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였다.

◇“스파이와 영화감독은 비슷해”

“르 카레 소설엔 ‘스마일리’라는 스파이 마스터가 있어요. 공작 계획을 짜는 사람이죠. 그가 하는 일은 마치 영화감독이 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스파이 마스터는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걸 믿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것처럼 제작과 작가를 겸하는 영화감독도 그렇죠. 예산을 따내고, 그 예산을 집행할 팀을 꾸리고요. 전면에 나서 상대를 속일 배우, 그러니까 스파이를 캐스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진짜처럼 보이게끔 사소한 디테일 하나 하나를 설계하는 겁니다. 결국 영화감독이 된 제 성장과 스파이 소설을 좋아하는 성향은 다르지 않아요.”

간담회에 앞서 ‘동조자’ 1·2회가 공개됐다.

총 7부작이지만 2회까지만 보더라도 이 시리즈에 박 감독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아이러니·패러독스·부조리가 거기에 흐른다는 걸 알 수 있다. 박 감독 역시 이 부분을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끊임 없이 강조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패러독스·부조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게 다인 작품이 아니라는 거였죠.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러니·패러독스·부조리

주인공 ‘캡틴’은 박 감독이 언급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극 중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인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대사로 시작한다. “나는 스파이, 고정간첩, 밀정, 두 얼굴의 남자입니다. 모든 일의 양면을 보는 저주를 받았죠.” 박 감독은 “두 개 관점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능력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저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종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열되기도 쉬울 겁니다.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으니까요. 이쪽과 저쪽이 극단적으로 투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조자”는 캡틴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베트남 전쟁을 돌아보는 작품이기도 하다. 베트남전에 뛰어들어 미국과 미국의 개입이 남긴 상처, 15년 간 이어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으로 떠난 베트남 난민들,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성장해 이중적 자아를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다. 박 감독은 자신이 베트남 사람도,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을 갖고 객관성을 유지해 이 사안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른 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두 나라에 대해 완전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모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베트남과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동맹상원의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캡틴은 미국 대중문화를 동경하는데,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제 나름의 객관성을 갖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존중을 담아서 영



화적인 표현으로 이 작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로다주 1인4역은 미국의 얼굴”

이 작품엔 주인공 캡틴을 연기한 베트남계 호주인 배우 호아 쉬안테를 비롯해 베트남계 배우들이 주로 출연한다. 그 중 눈에 띄는 건 단연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다. 그는 ‘동조자’에서 1인 4역을 맡아 각기 다른 인물을 각기 다른 색채로 연기한다. 박 감독은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백인 중년 남성 배우가 누가 있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제작진 모두 다우니 주니어를 똑같이 떠올렸다”고 했다. “다우니 주니어가 워낙 슈퍼스타이기도 하고, 시리즈에 출연한 적이 없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일단 제안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죠.”

◇“다음 회차 기다리며 음미해줄 것”

박 감독은 ‘동조자’의 캐나다 출신 제작

자 돈 맥켈러와 함께 이 작품에 공동 쇼러너(co-showrunner)로 참여하고 극본 역시 맥켈러와 함께 썼다. 다만 연출은 1~3회만 맡았다. 미국에선 시리즈를 만들 때 총괄 지휘자 역할로 쇼러너를 정하고 각 에피소드를 각기 다른 연출가와 작가가 나눠 맡는 게 일반적이다. 박 감독은 “모든 에피소드를 다 연출하고 싶었지만 체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촬영과 동시에 극본을 계속 써나가며 수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4회를 제외하고 동일한 연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논의했고, 후반 작업엔 직접 했기 때문에 한 감독이 만든 동일한 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가장 절정의 순간에서 다음 회로 넘어가는 TV 드라마 특유의 클리프행어(cliffhanger) 좋아한다며 다음 회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으로 작품을 음미하면서 즐겨달라라고 했다. “누군가는 클리프행어를 싸구려 트릭이라고도 하지만 전 그걸 좋아합니다. TV 드라마는 그 맛에 보는 거니까요. 물론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청자도 느끼는 게 많은 이야기일 거예요.” ‘동조자’는 매주 월요일 오후 쿠팡플레이에서 1회씩 공개된다.

BTS, 日 오리콘 유일무이한 기록 세워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레이와(令和)/2019년을 기산점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 랭킹’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오리콘 연호 랭킹의 ‘종합 순위’에서 해외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다.

이번 랭킹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싱글, 앨범, 음악 DVD·블투레이, 디지털 싱글과 앨범 및 스트리밍 등의 총 매출액을 산정해 순위를 매겼다. 방탄소년단은 전체 매출액 기준 앨범(36.6%), 음악 DVD·블투레이(33.8%), 스트리밍(25%) 순의 비중으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

방탄소년단의 약진은 세부 차트에서도 돋보였다. 이들은 작품별 매출 부문 ‘합산 싱글’, ‘합산 앨범’,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디지털 앨범’, ‘스트리밍’, ‘음악 DVD·블투레이’ 등 총 8개 부문에서 해외 가수 1위를 휩쓸었다.

2021년 팬미팅 실황 영상인 ‘BTS 2021 머스터 소우주(MUSTER SOWOOZOO)’, 2019년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투어의 피날레 콘서트 실황 영상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BTS WORLD TOUR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더 파이널’(THE FINAL)’을 비롯해 6개 작품이 ‘음악 DVD·블투레이’ 차트 ‘톱 50’에 들었다. 방탄소년단은 쟁쟁한 현지 가수들을 제치고 ‘톱 50’ 작품 수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고, 이 순위 내 랭크된 유일무이한 해외 가수가 됐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6월 발매한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BTS, THE BEST)’는 105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앨범’ 차트 6위에 올랐다. 이 랭킹에서 단일 앨범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올린 해외 가수 역시 방탄소년단뿐이다.

560억 들인 ‘눈물의 여왕’, 그 이상의 가치

요즘 식당 등 어딜 가든 tvN 주말극 ‘눈물의 여왕’ 얘기 뿐이다. 드라마 만들새를 떠나서 상반기 최고 흥행작임은 부인할 수 없다. 시청률 20%(닐스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넘었고, 세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를 찍었다. 종방까지 3회만을 남겨뒀는데, 화제성 차트도 휩쓸고 있다. 박지은(48) 작가는 시청률의 여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주역인 김수현(36)·김지원(31)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제작비 약 600억원을 투입, 그 이상의 성과를 냈을까.

21일 업계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총 제작비 560억원이 투입됐다. 16부작으로, 회당 35억원이다. 당초 400억원 이상으로만 추정됐으나, 160억원 가량 더 들었다. 국내 드라마 최대 규모인 디즈니+ ‘무빙’(2023)보다 총 제작비는 작지만, 회당 제작비는 비슷하다. 무빙 총 제작비는 650억원 이상(20부작 회당 32억5000만원)이다.

요즘 드라마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판매를 통해 먼저 제작비를 회수한다. 제작비가 수백억 원대로 흥행 실패 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눈물의 여왕’은 120% 리튬(제작비 회수)을 달성했다는 전언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공개했으며, 국내에선 tvN과 티빙에서 선보이고 있다. 넷플릭스 판매와 tvN 편성비 등으로만 650억원 이상 벌어들였다. 즉, 방송 전 제작비 540억원을 회수한 것을 넘어 약 100억원 수익이 더 난 셈이다.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며 “넷플릭스에서 제작비의 약 80%를 부담했다. 간접광고(PPL) 등 부가수익을 합치면 100억원+가 남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경우, 넷플릭스가 지적재산권(IP) 권한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제작비 120%까지 부담한다. ‘눈물의 여왕’ OTT 오리지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80% 지원 받은 데는 한류스타 김수현과 스타작가 박지은의 이름값이 컸다. 두 사람은 ‘별에서 온 그대’(2013-2014)와 ‘프로듀사’(2015)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췄다. ‘눈물의 여왕’은 일본에서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랐는데, 그 만큼 해외에서 K-로맨스 선호도가 높은 점도 영향을 끼쳤다.

김수현이 회당 출연료를 약 3억원으로 낮추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애초 회당 8억원설이 제기 됐으나, 3억원대로 총 50억원 가량 받았다는 후문이다. ‘눈물의 여왕’은 스튜디오 오드레곤과 문화창고, 쇼러너스가 함께 만들었다. 문화창고는 스튜디오오드레곤 자회사이자 박 작가 소속사이며, 쇼러너스는 장영우(44) PD가 세운 제작사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동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골드메달리스트 CCO이자 김수현 사촌형으로 알려진 이보배(이사랑)만 제작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간 골드메달리스트가 ‘사이코지만 괜찮아’(2020) ‘어느 날’(2021) 등 김수현 주연 드라마를 공동 제작한 것과 대조됐다. 박 작가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와 출연료와 공동제작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른 관계자는 “보통 드라마가 리튬이 어려우면 편성이 안 된다. ‘눈물의 여왕’은 김수현과 박지은 재회, 기획·제작·편성에 힘이 붙었다”면서도 “김수현이 회당 8억원씩 받고 소속사까지 공동 제작에 참여했으면, 이 정도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드라마는 3년 차 부부인 용두리 이상아(박현우·김수현)·윈즈 그룹 재벌 3세 ‘홍해인’(김지원)이 위기를 헤쳐가며 이룬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다. 재벌가 남성과 평범한 여성의 로맨스에서 성(性) 역할을 바꾸고, 처가살이를 넘어 사랑을 더했다. 물론 ‘울드하고 유치하다’는 평도 많지만, 빠른 전개와 구멍없는 연기, 뛰어난 연출력 등의 조화가 잘 이뤄졌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콘텐츠 리포트에서 6주 연속 화제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요즘 시청률은 더 이상 지표로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20%를 돌파한 데는 30~50대 여성들이 대리 만족 시킨 점도 주요했다. 개그우먼 김지혜(44)는 SNS에 거의 매회 분방사수 인증 영상을 올렸고, 통역사 이윤진(40)은 배우 이범수(54)와 이혼 소송 중에도 “하루에 8시간씩 잘 자고, ‘눈물의 여왕’ 꼭 챙겨보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김수현과 김지원 댄스도 치솟고 있다. 김수현은 전작인 쿠팡플레이 ‘어느 날’(2021)이 예상보다 흥행하지 못했는데, ‘눈물의 여왕’으로



한류스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눈물의 여왕’까지 박 작가와 함께 한 작품 모두 성공, 흥행 보증 수표의 위력을 보여줬다. 뽀얀 캐릭터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여주인공인 김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를 끌어당겼다. 차기작으로 ‘비밀의 숲 2’(2020) 박현서 PD 신작인 ‘넝쿨’을 검토 중인데, 회당 출연료는 8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김지원은 ‘광고의 여왕’이 될 기세다. ‘상속자들’(2013) ‘유라클’ 이후 11년 만의 재벌 연기 도전이다. 별개 속 톱스타 ‘전송이’(전지민)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연기력과 화려한 스타일링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미 롯데칠성음료 주주 ‘처음처럼’과 한화손해보험 모델로 발탁,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재벌 3세 품격으로 화제를 모은 만큼 종방 후 다양한 품목에서 러브콜이 쇄도할 전망이다.

PPL 브랜드와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메인 협찬사로 참여했으며, 불거리, 서브웨이, 허니웨이, 햇반, 솔반, 플랜트 퀴린지·에어프라이 등도 PPL로 등장했다. 후반부도 갈수록 PPL이 과도해 몰입도를 떨어뜨렸지만, 판매량 증가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김희재 연구원 역시 ‘눈물의 여왕’ 성공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봤다. “높은 시청률에 따라 tvN 방영권에 더해 광고 연동한 인센티브 수익이 추가될 것”이라며 “‘눈물의 여왕’은 제작비가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에 동시 방영 돼 리튬율도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봤다.

‘코첼라’ 에이티즈, 이제 ‘절호의 시간’

대세 K팝 그룹 ‘에이티즈(ATEEZ)’가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낸다.

21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는 오는 5월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GOLDEN HOUR : Part.1)’을 발매한다.

에이티즈는 현재 K팝을 대표하는 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2월 발매한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윌(WORLD EP FIN : WILL)’을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에 6주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픈셜 앨범 차트 톱100에서 아쉽게



1위를 놓치며 2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에이티즈는 ‘K팝 보이그룹 최초로 미국 최대 규모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라이브 실력으로 재조명됐다. 동시에 ‘그레미 뮤지엄’에서 팝업 전시를 열고 있다.